

# 역사의 반복을 비추는 거울

- 『산 제물 남자는 필요한가?(生け贄男は必要か)』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宋仁善\*

(e-mail : insunsong@hanmail.net)

---

## 目次

---

1. 들어가는 말
  2. 중첩하는 이야기
  3. 이야기A와 B: 베트남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4. 이야기B와 C: 제2차 세계대전과 제1차 세계대전
  5. 반복되는 황무지
  6. 맺음말
- 
- 

## 1. 들어가는 말

오에 겐자부로 의 『산 제물 남자는 필요한가?(生け贄男は必要か)』(1968)<sup>1)</sup>는 베트남전쟁 기간 중에 씌어졌으며, 일본의 베트남 특수(特需)를 주요 제제로 삼은 단편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는 베트남 특수와 연관된 중심 이야기 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른바 ‘이야기 속의 이야기’, —미자나빔 (Mise en abyme/入れ子構造)<sup>2)</sup> 기법으로 들어있다. 흔히 누보로망의 한 가지 기법으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1) 『文学界』 1968년 1월호에 발표. 이후 단행본 『われらの狂気を生き延びる道を教えよ』(1969)에 수록. 이하, 본 논문 중에서는 「산 제물 남자는~」으로略하기로 한다.

2) 프랑스어로 「심연에 두다」라는 의미. 일본어로는 ‘紋中紋’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는 끝없이 연속하는 반사나 반복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그 자신의 축소판을 내부에 품고, 축소된 상(像)이 다시금 그 내부에 더 작게 축소된 상을 반복적으로 품고 있는 회화이다. (ピーター・ブルッカー、有元健ほか訳 『文化理論用語集』(新曜社、2003) 참조) 미자나빔에

로 알려지고 있는 미자나빔은 단순히 ‘이야기 속의 이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야기 안에 자신의 축약판과도 같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반복적인 구조로 담아내고 있으며, 감싸는 이야기와 삽입된 이야기 사이에는 복제성 내지는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치 두 개의 거울을 서로 마주 해 놓은 것처럼, 유사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산 제물 남자는~』의 가장 바깥 쪽 테두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나」와 「젠(善)」이라는 기묘한 사내와의 만남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젠」이라는 사내는 작가인 「나」에게 베트남 수출용 완구 폭탄과 관련된 풍문과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완구업자의 「악(惡)」을 고발하는 글을 르포나 소설 등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써(書<)주기를 촉구하는 택시 기사이다. 그런데 「젠」과 「나」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재회를 둘러싼 가장 바깥 쪽의 이야기 속에는, 「젠」이라는 사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이라며 녹음 테이프에 담아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가 담긴다. 「젠」의 체험담인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짧지만 강렬하며 그 자체로서 일단락이 지어진 또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젠」의 이야기가 베트남전쟁과는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의 패전 후일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동시대 일본 사회의 문맥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감싸는 이야기>와 <삽입된 이야기> 사이의 관련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각각 다른 전쟁을 소재로 한 두 이야기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중층화된 구조 속에 담긴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중첩하는 이야기

본래 문장학(紋章學)에 기원을 둔 미자나빔은, 어떤 문장(紋章) 안에 그것의 축약본이 담겨있고, 그 축약본의 문장 속에 또 다시 더 작은 축약본의 문장이 담기는 반복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문학에서의 미자나빔 기법은 앙드레 지드가 그의 소설 『사전(私錢)꾼들』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이야기 속에 그것과 비슷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형식이라 말할 수

대한 한글 번역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격자구조’ 혹은 ‘액자구조’라는 용어가 있으며, 불문학 관련 논문에서는 ‘거울 속에 거울 넣기’, ‘심연으로 밀어 넣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몇몇의 논문들과 관련 서적에서는 ‘미자나빔(미장아빔)’이라는 원어 발음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있다. 뒤시앙 달렌박은 이를 유형화해 문학 텍스트에서 자주 보이는 미자나빔의 형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 ①삽입된 이야기와 이를 둘러싼 이야기 속 인물들이 동명이인으로 유사성을 나타내는 경우
- ②소설 속 인물과 작가가 거의 동명이인인 경우
- ③삽입된 이야기와 둘러싼 이야기가 유사한 경우
- ④유사성을 나타내 주는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의 배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⑤둘러싼 이야기에서 사용된 징후적 표현들이 삽입된 이야기 속에서 되풀이 되는 경우<sup>3)</sup>

편의상, 『산 제물 남자는~』의 감싸는 이야기를 ‘이야기A’로, 삽입된 이야기를 ‘이야기B’로 부르기로 하자.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전쟁—베트남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을 제재로 하고 있으며, ‘산 제물’이나 ‘인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두 이야기를 한 개의 공통된 주제로 묶어주고 있다. 또한 삽입된 이야기와 감싸는 이야기 사이에 동명이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은 없으나, 각각 어른이 된 「젠(善)」과 어린 시절의 「젠」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 밖의 인물의 배치 역시, 이미지나 상징성에 있어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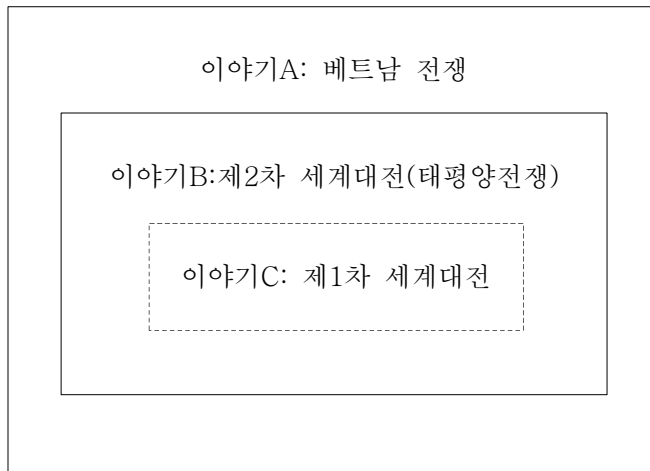
반복적인 반영을 나타내는 미자나빔 기법과 이 소설의 역사적 관련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요소로, 이 소설이 실은 표면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으로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C’를 그 내부에 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즉 ‘이야기B’ 속에서 그 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삽입된 ‘이야기C의 가능성’<sup>4)</sup>을 엿볼 수 있다는 말이다. 잠재된 ‘이야기C’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다고 보이는데, 이는 ‘이야기B’의 배경과 상징, 이미지들이 엘리엇의 『황무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5)</sup> 장편시 『

3) 김치수 외 『누보 로망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111-112에서 재인용.

4) 여기에서 ‘이야기C’가 아니라 ‘이야기C의 가능성’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그것이, 감싸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B’와 완전히 구분되어 독립된 ‘이야기C’로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이야기B’속에 상징과 이미지로서만 뽀뽀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산재한 상징과 이미지의 조각들을 모아 재구성하여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C’를 유추해, ‘이야기B’ 속에 삽입된 ‘이야기C’로서 읽어내는 일—즉 또 하나의 중첩된 미자나빔 기법으로 읽어내는 일은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떠넘겨져 있다.

5) 「젠」의 녹음테이프에 담긴 ‘이야기B’가 엘리엇의 『황무지』를 어떻게 차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줄고 「ベトナム戦争の現実と架空」(『日本文学』2006.9)에서 부분적으로 논한 바가 있어 여기에서는 상술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황무지』는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정신적 메마름」과 「믿음의 부재」, 「생산이 없는 성(性)」과 「재생이 거부된 죽음에 대한 시」<sup>6)</sup>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황무지』의 상징과 이미지들은 『산 제물 남자는~』의 ‘이야기B’ 안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태평양전쟁 뿐 아니라 엘리엇에게 환멸감을 안겨준 한 제1차 세계대전까지 자연스럽게 상기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산 제물 남자는~』은, 베트남전쟁의 ‘이야기A’ 안에 태평양전쟁의 ‘이야기B’가 들어있고, ‘이야기B’ 안에 다시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C’가 잠재적인 형태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도면 참조)



먼저, 감싸는 ‘이야기A’와 삽입된 ‘이야기B’에 등장하는 각각 다른 두 개의 배경—두 개의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야기A’는 오에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의 시대 배경이기도 한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삽입된 ‘이야기B’는 그로부터 20여 년 전의 기억인 패전 직후다시—말해 제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태평양전쟁의 종전 직후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전쟁 사이의 유사성이란 무엇일까?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안에 제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의 이야기가 미자나빔 기법으로 담겼다면, 한 개의 전쟁의 특징적인 문양 혹은 축약본이 또 다른 한 개의 전쟁 속에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오에로 하여금, 또한 일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 두 전쟁을 오버랩하게 만드는 동시대 문맥이란 무엇이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6) T.S. 엘리엇, 황동규 역주 『황무지』 (민음사, 1990) pp.10-12.

### 3. 이야기A와 B: 베트남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우선, 「산 제물 남자는~」에 있어서 베트남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과의 오버랩은, 일본인들이 과거 자신들의 침략전쟁의 경험과 미국의 베트남 침략을 일정 부분 심정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의 자료들은 일본이 직접 참전하지 않았던 베트남전쟁을 일본인들 스스로는 어떤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병력들은 극동미군으로, 거기에는 일본 점령 시대로부터의 유산이 계승되어 있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으며, 더욱이 베트남에서 싸운 미군들의 상당 부분은, 요코스카나 오키나와를 출격기지로 하고 있어, 휴가나 부상을 입으면 이곳으로 되돌아와, 「마마상」<sup>7)</sup>이 있는 곳에 드나들곤 했던 것이다.<sup>8)</sup>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기지는 베트남을 향한 출격기지가 되었으며, 요코스카, 사세보 기지는 미 제7함대의 거점이었다. 비록 직접 병력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전쟁의 최대 병참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일본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절대적 지원 세력이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따라서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화와도 무관할 수 없었다. 더구나 미국의 인도차이나반도 개입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뿌리가 되는 미국·소련의 양 진영으로 대표되는 냉전체제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기반이 마련되어 1945년 전쟁의 종결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태평양전쟁 초반의 열세를 딛고 1942년 중반 이후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속속 일본에 승리하는 사이에, 유럽에서는 1943년 이후 소련이 독일을 제압하고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 초반부터 독일 쪽에 가담했다가 마침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을 세계 규모로 확대시켜버린 일본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쟁이 곧 과거사를 환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래의 예문에서도 보이듯, 미·일 안보조약을 매개로 한 일본의 미국에 대한 공범의식이나 베트남에 대한 가해의식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 그들 자신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까지 소급되고 있었다.

7) 베트남 전쟁 당시 오키나와를 출격 기지로 한 미군 병사들은 오키나와에 있는 바(bar)의 마담을 「ママさん」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장인 베트남으로 건너가서도 현지의 술집 마담을 같은 호칭으로, 즉 さん 이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살린 채 불렀다고 한다.

8) 秦正流ほか「ベトナム戦争とは何だったのか」『ベトナム戦争の記録』大月書店, 1989, p.5

오다 마코토(小田実)가 주장한 것이, 「안보조약에 의해 우리들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의식」을 젊은이들에게 환기하는 일이었다.(중략)

1967년 3월, 일본기독교단이 전전(戰前)의 모든 기독교 단체의 전쟁 협력을 확실히 하는 보고를 공표했다.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이 보고에 관해, 「전쟁이 끝나고 22년이 지나 왜 그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베트남전쟁이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비로소 태평양전쟁 책임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라고 평했다.<sup>9)</sup>

오다 마코토(小田実)는 베트남전쟁 기간 중 일본의 대표적인 반전 운동을 주도했던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ベトナムに平和を! 市民連合. 약칭으로 보통 べ平連이라 불렸다.)’에 속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일본의 지식인이다. 당시 일본의 베트남 반전 운동에 뜨겁게 동참하던 일본 국민들의 정서 속에는 오다 마코토가 환기했던 대로 베트남에 대한 가해자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전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태도는, 두 전쟁에 공통된 제국주의적 성격을 성토했고, 과거 아시아 식민지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상기하거나 반성하는 일면적인 성격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베트남전쟁은 일본인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 의식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피해자 의식도 함께 자극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잘 알려진 대로 베트남전쟁은 「T.V가 전장(戰場)의 영상을 전세계로 송신한 최초의 전쟁」<sup>10)</sup>이었다. 그것은 일본의 전쟁 체험 세대에게 있어서는 불과 20여 년 전에 겪었던 자신들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미군에 의한 폭격 소식과 그로 인한 전쟁의 참상 속에서, 패전 직전 미국으로부터 본토를 침공 당했던 기억을 겹쳐서 보고 있었다. 두 개의 전쟁이 일본인들의 내면에서 종종 미분화된 채 일으키는 착각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베트남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일본인들에게는 저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내 경우를 되돌아보면, 그건 베트남의 진흙탕 물을 필사적으로 건너 피난길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의 엄마가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엄마는 겨드랑이에 어린 아이를 한 명 끼고, 다른 한 손으로 그보다 조금 더 큰 아이의 손을 끌고 있었다.(중략) 이 때 내 마음 속에는, 도쿄와 도야마에서 두 번 만났던 공습의 기억이 되살아났다.<sup>11)</sup>

9)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新曜社, 2004, pp.592-593

10) 中村政則 『戦後史』 岩波書店, 2006, p.116

11) 小中陽太郎 「につぼん・ベトナム・アメリカ」 『ベトナム戦争の記録』 大月書店, 1989. p.171

아메리카의 진보적인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진주만이 없었으면 결국 베트남도 없었을 것이다. 진주만에서 일본인이 환기한 경계심이 베트남에서의 미군의 역할의 근원적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내 기억은 기묘한 착종을 보이며, 어린 시절 나를 사로잡았던 공포심(아메리카는 강간하고 살육하며, 화염방사기로 태운다),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증오가 그대로 베트남 아이들의 그것과 겹쳐져 있는 듯이 느껴졌다.<sup>12)</sup>

이처럼 일본은 베트남을 침략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가해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대화함과 동시에, 불과 이십여 년 전 자신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었던 참상과 피해 역시 겹쳐 보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드높았던 반전 무드는 그러한 자신들의 전쟁 경험과 맞닿아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산 제물 남자는~』의 「젠(善)」의 행적은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당시의 일본 내 반전 무드를 반영하고 있는데, 「젠」의 연설에 ‘베트남의 아이들’ 뿐 아니라, 한국 전쟁을 환기하는 ‘조선의 아이들’, 태평양전쟁을 환기하는 ‘일본의 아이들’까지 언급되고 있는 점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의 출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연쇄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오버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재해 속에 상처 입은 아이들의 사진패널을 배경으로 하고, 모금함을 둘러싼 채 아이들이 서 있었다. 축문(祝文) 혹은 시(詩) 같으면서도 절규에 가까운 낭독이라 해야 할 「젠」의 연설은 모금함에 통행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 아이들을 구하라, 베트남의 아이들을 구하고 조선의 아이들을 구하라! 그리고 일본의 아이들을 구하라!(p.84)<sup>13)</sup>

그러나, 『산 제물 남자는~』에서 베트남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미자나빔 기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베트남전쟁 당시 일본인들이 지녔던 미군에 대한 반감과, 베트남 국민들과의 피해 의식의 공유에만 유래하고 있지는 않다. 설사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정서적 반응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른바 ‘가해자 미국’에 대한 일본과 베트남의 입장은 결코 역사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으며, 그러한 일본 국민들의 일방적인 동류의식(피해자 의식)이 두 전쟁의 본질적 유사점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오에에 의

12) 大江健三郎 「パール・ハーバーにむかって」 『鯨の死滅する日』 講談社文芸文庫, 1992, p.282 (初出 1967년)

13) 본 논문에 인용된 텍스트는 『大江健三郎全作品2(第Ⅱ期)』(新潮社, 1977)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며 기 번역본 『우리들의 광기를 참고 견딜 길을 가르쳐 달라』(정성호 역, 고려원 1996)를 참조했다. 이하 본문의 인용문에는 별도의 각주 없이 말미에 페이지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해 선택된 미자나빔 기법은 그의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전쟁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엇비슷한 공명을 자극하는 단계를 넘어, 반복되는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 인류 역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인다.

베트남은 다름 아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태평양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도화선을 제공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베트남은 그 이전까지는 오랜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게 되자,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어부지리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미국을 자극해 양국 간에는 긴장이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미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진주만 선제 공격으로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시작하게 된다.<sup>14)</sup> 일본의 패전으로 베트남에도 잠시 독립의 기운이 싹텄으나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 베트남을 점령했으며, 호치민에 의한 베트남의 사회주의화를 우려한 영국과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트남의 완강한 민족주의 운동에 힘을 잃은 프랑스의 뒤를 잃어 약소국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에 이른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도미노 현상을 저지할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으로서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1945년 이후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미국이 승리자가 되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숙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개입해 들어왔고,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20년 만에 아시아는 또다시 한국 전쟁을 거쳐 베트남 전쟁에까지 이르게 된다. 패전 후 뒤바뀐 판도 속에서 인도차이나 지역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일본이, 전후(戰後)에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조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적 실리를 취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sup>15)</sup>

한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러시아의 사회주의화가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

14) 미국이 취한 석유수출 금지 조치로 석유 수입량의 90%가 격감하게 된 일본은 전쟁 포기인가 미국과의 결전인가를 결정해야하는 기로에 놓인다. 1941년 11월, 도조(東條英機) 내각은 미국에 석유 수출금지의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이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로부터 물러날 의사가 있음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 이후 일본의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이 이어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거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상, 피터 두우스, 김용덕 역 『일본근대사』 지식산업사, 2004, pp.242-247 참조.

15) 村喜代子の『現代日本經濟論』에 의하면 베트남 전쟁 기간 중 일본은 한국, 남베트남,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수출로,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뿌린 달러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 또한 패전 이래 해마다 적자가 계속되지만 했던 일본의 대미수출은 미국의 베트남 북쪽 개시 이후인 1965년에 돌연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1966년의 일본의 수출에 있어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30%대에 달했다. 이상 中村政則 『戰後史』 岩波書店, 2006, pp.120-122 참조.

에서 이루어진 점,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치며 소련이 주변의 위성국들을 거느리며 세력권을 형성하게 된 점,<sup>16)</sup>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현저하게 강화하고 제1차 대전 이후 미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돌아서는 등 세계 시스템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점<sup>17)</sup> 등을 감안한다면,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미국이 개입한 아시아의 두 전쟁—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과도 결코 무관하다 할 수 없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확실하게 새로운 지배 체제로서의 위치를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게 된 미국의 지배력은 냉전체제를 지나며 아시아에서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겨냥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참전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발발 역시 그러한 미국의 전후 아시아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를 거친 베트남의 국민들이, 다시금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막대한 희생을 강요당한 전쟁으로, 오에는 이를 우발적인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들 강대국들의 정치경제적 욕망이 재생산되고 집약된 역사적 사건으로서 총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제와 연쇄가 끝없이 심연으로 이어지는 미자나빔은,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그 자체가, 베트남전쟁 속에 중층적으로 집약된 역사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 4. 이야기 B와 C: 제2차 세계대전과 제1차 세계대전

베트남은 100여년에 걸쳐 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제국주의에 저항해 왔다. 그런데 그 베트남과 전쟁을 벌인 미국 역시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독립 전쟁을 경험한 국가였다. 전술했듯이 영국의 식민지라는 위치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출발점은 제1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제1차 세계대전 안에는 이미 제2차 대전의 싹이 내재되어 있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식민지 분할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재발을 예견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도 연합국과 추축국의 입장에서는

16) 피터 심킨스 외, 강민수 역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플래닛미디어, 2008, p.657 참조.

17) 김택현 편 『세계사 - 제1차 세계대전』 중원문화, 1985, pp.407-408 참조.

바로 그러한 성격의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연합국은 스스로가 정의라고 규정한 세계 시스템을 지키고자 했고, 추축국은 체제 자체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다.<sup>18)</sup>

‘이야기B’에 등장하는 복원병(復員兵)은 제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일본의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군인이다. 「젠」의 체험담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이야기B’는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직후의 황량했던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전쟁고아들의 소규모 집단생활과, 그 속에서 일어났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듯한 ‘인육’을 둘러싼 사건을 제재로 하고 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 지방 소도시로 돌아온 한 복원병이, 전쟁 중 끝내 천황과 인류의 「부흥(復興)」을 위한 「산 제물(生け贄)」이 되지 못한 것에 죄책감과 미련을 느껴, 스스로 전쟁고아들을 떠맡아 집단생활을 하며 벌여졌던 이야기이다. 복원병은 아이들을 돌보다가 마침내 겨울의 황량함과 추위 속에 기근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군복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징적인 「산 제물」로 내놓아,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젠」에 따르면 자신은 그 당시 함께 생활했던 전쟁고아의 한 명이었으며, 부지불식간에 복원병의 인육 한 점을 먹은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그 자신 역시 언젠가 때가 되면, 「베트남의 아이들을 위해」 「일본의 아이들을 위해」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내장이라도 먹게 해 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전쟁이 끝나고 지방의 소도시로 돌아온 복원병에게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전사(戰死)에 대한 동경’이다. 그는 전쟁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을 「부흥」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불러오기 위한 산 제물(「復興」という新しい季節をまねきよせるための生け贄)」(p.69)로 미화하며, 자신은 단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인간이 못되기 때문에 「산 제물로 선택되지 못했다(生け贄に選ばれなかった)」(p.69)고 죄스러워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복원병의 ‘전사에 대한 동경’은, 1960년대 일본 사회 일각에 실제로 존재했던 전쟁 미화 분위기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의 전쟁 체험은 1960년의 안보투쟁 이후 급속히 풍화되기 시작하는데,<sup>19)</sup>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에 의하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대두이고, 다른 하나

18) 中村隆英 『昭和史 I』 東洋經濟新聞社, 1993, p.365 참조.

19)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에 의하면, 미국과, 미국에 편승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60년 안보투쟁은 전쟁 체험 세대에게는 미국을 적국(敵国)으로 했던 과거의 기억에 근거를 둔 「전쟁 체험의 분출」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체험은 안보 투쟁 이후 급속히 풍화해가기 시작한다. 竹内好全集 第八卷, p.223, 232, 235,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新曜社, 2004) p.559에서 재인용)

가 단지 전쟁을 추상적인 미화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패전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시기, 즉 이 작품의 집필 시기에 즈음하여 그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해졌다고 한다.

1960년대는 생활의 안정과 함께 각지에서 「전우회」가 결성되고, 전직 병사(兵士)들의 회상기가 다수 출판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른바 「전쟁 이야기(戦記もの)」 출판 붐은 패전 직후에도 존재했지만, 1967년의 『출판 뉴스』는 당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출판되는 전쟁 이야기, 또는 전쟁 소설에는 뭔가 이전과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부류에는, 전쟁은 최악이고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박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쟁을 미화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 일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쓰인 것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sup>20)</sup>

전중파(戰中派) 지식인들은 때때로 「전사(戰死)」에 대한 동경을 이야기했다. 해군의 청년장교였던 무라카미 이치로는 1960년에, 「내게 있어 인생은 8월 15일에 끝나 있다. 죽었어야 했다.」(중략) 미시마 유키오가 군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소설을 쓴 것은 주지의 일이다.<sup>21)</sup>

오구마에 의하면 이 시기의 ‘미화’된 전쟁물이나, 혹은 반대로 전쟁의 비극을 전하려는 전쟁물 모두, 전쟁을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해 감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며, 바야흐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 뿐 아니라 전쟁 체험 세대에게도 전쟁이 이미 각자의 체험과 실감을 뛰어 넘은 추상물이 되어가고 있었다.»<sup>22)</sup>

「신(神)을 기쁘게 할 만한(神を喜ばせるにたる)」(p.69)산 제물이 되지 못해, 전사에 대한 동경을 품고 끝내 이상한 죽음의 방식을 택한 복원병은, 이러한 동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구현하고 있는 듯한 인물이다. 「젠」이 들려주는 ‘이야기B’에서 그려지는 전쟁과 패전, 그리고 황량한 벌판에서의 전후(戰後) 생활은 결코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다. 그것은 60년대의 풍화되어 가는 전쟁의 기억이 그러했듯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미지의 차용과 패러디로 지극히 상징적이어서 구체적인 리얼리티의 실감을 방해한다. 복원병은 입버릇처럼 전쟁 뒤에 도래할 ‘부흥’에 대한 꿈을 강조하며 그 ‘부흥’을 위해 신성

20)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新曜社, 2004, pp.559-560 (이하, 인용문 중의 밑줄은 논자에 의함)

21) 전계서, pp.600-601

22) 전계서, p.560

한 책무를 수행한 젊은 ‘산 제물’들을 미화하나, 단순히 ‘이야기B’ 안에 반복되는 「황무지(荒地)」라는 단어와 황폐한 풍경의 묘사,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를 그려낸 이야기라는 사실만으로도, 독자들은 부흥과 풍요로움에 대한 희망보다는, 부지불식중에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느껴지는 황폐함과 그 배경이 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하게 된다.

우리는 지방 도시에서 \* \*로 가는 길목의 고개 너머, 황무지에 세워진 한 동의 가건물로 모두 이주했습니다.(p.66)

가건물 주변에는 무성하게 우거진 관목들을 걷어내고 만든 작은 채소밭이 황폐해진 채 버려져 있었는데, 그곳을 새로 경작해서 장래 우리들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이 복원병의 계획이었습니다.(중략) 그 좁고 초라한 밭과, 주위를 가득 메우며 산마루에까지 이어지는 일대의 관목이랑 억새 언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린 아이인 내가 보기에든 복원병의 기획의 바보같은 공상성은 명료해서, (중략) 그의 말에 나는 그다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p.67)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돌아온 복원병과 몇몇의 전쟁고아들만으로 이루어진 단체 생활이라는 설정도 비현실적이지만, 그들의 거주 공간 역시, 연극이나 영화의 세트처럼 의도적으로 ‘황무지’를 연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부여받지 못한 채 ‘복원병’이라고만 불리는 등장인물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듯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놓으며 죽음에 이르고, 남은 전쟁고아들 역시 종교적인 성체(聖體) 의식다운 감각은 전혀 없이 결과적으로 그 복원병의 살점을 먹게 되어 복원병의 ‘산 제물’원망(願望)을 이루게 된다. 원래 산 제물(生け贄), 혹은 희생양(Scapegoat)이란 전통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죽여 신(神)에게 바치던 종교 의례로부터 왔는데, 프랑스 사회학자 모스(Marcel Mauss)에 의하면 그 유형 의식이 바로 부정(不淨)을 씻고 축복을 수용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자원하여 ‘산 제물’이 된 복원병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뒤에 남은 아이들의 세상은 결코 축복이나 풍요로움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되풀이되는 전쟁의 유형극과, 그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生き延びる」) 현대사의 축약본과도 같은 인물들이 되풀이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결국 ‘공동체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복원병의 ‘산 제물’ 미화, 혹은 전사 원망(戰死願望)은 복원병의 다소 과장된 포즈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작자의 풍자 의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에는 작중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복원병의 살점을 날 것(生)인 채로

먹는다는 설정을 함으로써, 상징화되지 않은, ‘산 제물’이라는 말 그 자체가 지닌 직접적인 느낌 그대로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걸리지 않은 ‘산 제물’ 모티브의 직접성이 주는 생생한 잔혹함은 작중에서 언급되는 전쟁의 잔혹한 스케치—더 구체적으로는 전쟁 무기의 잔혹함—와 더불어 현대사의 야만성과 결부되어 있다.

## 5. 반복되는 황무지

전술했듯이 ‘이야기B’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엘리엇의 장편시 『황무지』이다. 제2차 대전 안에 이미 제1차 대전의 역사가 내포되어 있듯, 이 소설 속에서도 태평양 전쟁의 ‘이야기B’ 안에 1차 대전 후의 폐허를 노래한 『황무지』의 이미지들이 산재해 있다. 『황무지』가 그 이미지와 상징에 있어서 성배(聖杯)전설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지는 성배의 분실과 회복을 둘러싼 성배전설 역시, 말 그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스스로 희생양이 된 ‘산 제물’ 모티프의 이야기이다. 작중 복원병의 죽음은 그러한 자발적인 ‘산 제물’이야기의 패러디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수호신인 복원병이 일대 결심을 하고 검은 가죽 반장화는 물론 비행병의 제복 전부를 한 묶음에 마을 청년에게 팔았던 것입니다.(중략) 옷을 팔아 산 물건들을 짊어지고 황무지를 가로질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토브에 쌀과 야채. 거기에다 마을 사람들이 밀조하는 미심쩍은 포도주까지 한 병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 한 발 늦게 태어난 것을 분하게 여기고 있던 당시의 멋쟁이 농촌 청년들에게 비행복 한 벌이 얼마나 값비싼 희소가치를 지닌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무엇보다도 비행복까지 팔아버린 복원병이 왜 포도주같은 사치품을 사들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p.70)

위의 예문에서 보듯 부흥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위해 희생된 산 제물들의 의의를 기리고 관리하고자, 또한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산 제물화(化)를 위한 제의와도 같은 마지막 만찬을 위해 복원병이 무리해서 선택한 소도구는, 결실과 수확,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주—성배<sup>23)</sup>에 담겨야 마땅할—였다. 그러나 그러한

23) 성배전설에서 어부왕은 성배를 관리하는 임무를 지닌다. 성배를 잃어버린 후 어부왕의 영도는 황

소도구 역시 전후의 불모성과 대비되며 당시의 ‘황무지’를 부각해서 보여줄 뿐이다. 수많은 산 제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의 축복은 보이지 않고, 전쟁으로 황폐해져 부흥의 길이 요원해 보이는 복원병의 황무지는, 성배를 잃어버려 성장과 재생이 멈추어버린 전설 속의 어부왕의 영토와 이미지를 공유한다. 이처럼 『산 제물 남자는~』에서 「복원병」과 「젠」은 성배전설의 등장인물인 「어부왕」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불모성과 재생 불가능성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성배전설에서, 성배를 잃고 자신의 영토가 메마르고 황폐한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어부왕은 성적(性的) 상처를 지닌 불모의 존재로서 암시되고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그러한 불모성이 본 작품의 복원병과 「젠」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나는 내가 낳을 새로운 육체에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살점을 먹었기 때문에 생식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악(惡)」을 고발하는 것 외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p.63)

또한 『산 제물 남자는~』의 「젠」과 「복원병」에게서 보이는 비정상적이고 불모적인 성(性)의 이미지 역시, 『황무지』의 저속하되 불모적인 성(性)의 성격을 이어받고 있다. 『황무지』의 제3부 〈불의 설교〉는 「과거의 고상한 채식 행위를 현대의 음탕한 행위와 일치」시켜 보여주고 있으며, 「황무지의 성(性)이 지닌 무의미와 저속함」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고 알려지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산 제물 남자는~』에서 그려지는 두 남자의 성(性) 역시 생명의 재생 혹은 갱신과는 무관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 날 밤의 일 중, 또 한 가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린 지도자가, 그 복원병은 매일 밤 한 명씩 자기 침상에 아이를 끌어들이 나쁜 짓을 했어, 너도 그걸 당했을 걸?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녀석을 먹어 줬으니 이젠 괜찮아. 우리들은 변태가 되지는 않아, 하고 말했던 일입니다.(p.72)

—그것은 「젠」이 자기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젠」은 스스로, 내게는 생식능력이 없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종종 잡지 광고란에 조그맣게 실리는 거 있죠? 성기단소라고 말이죠. 자기는 그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 성기를 희롱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폐해졌으나 그 성배를 되찾자 그의 영토는 다시금 기름지고 풍요로워 진다. 따라서 성배는 풍요와 결실, 다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24) T.S. 엘리엇, 황동규 역주 『황무지』 (민음사, 1990) pp.10-12 참조.

성 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유감스러워 했죠.(중략) / 아니,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다른 아닌 「젠」 자신이 녹음한, 그의 성적(性的)인 장면이 담긴 테이프를 어쩌다 들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성기단소 남자의 성 교섭과는 정반대의, 폭력적일 정도로 월등한 육체성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지, (중략)

—「젠」은 정상적인 성교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시도했고, 그런 방식에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여자 몸에 고통을 주었겠지요, (p.81)

이처럼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공허한 성(性)의 암시와, ‘황무지’의 불모적인 이미지의 강조는, 이 소설 전체에서 언급되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소설 속에서도 「종전 직후 ‘부흥’이라는 말(終戰直後「復興」という言葉)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있었다(子供たちのボキャブラリーの領分にまで浸透していた)」(p.69)고 언급되어 있듯이, ‘부흥’은 전후 일본의 한 시기에 있어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말이다. 소설 속에서 잠시 언급되는 한국전쟁도, 그리고 베트남전쟁도,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있어서는 전후 부흥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그 두 전쟁이 명백하게 전후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젊은 전사자들이 무엇을 위한 산 제물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다른 아닌 「부흥」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을 불러오기 위한 산 제물이었던 것이다」(p.69)라는 복원병의 말은, 수많은 ‘산 제물(전사자)’을 양산한 전쟁이 자칫 「부흥」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위험한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sup>25)</sup>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부흥」이 필요한 자본주의 사이클의 침체기에는

25) 末永茂喜는 「戦争経済と恐慌」라는 글 속에서, 전시 경제는 그 전쟁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화하거나 장기화하지 않는 한, 전비 지출이나 전쟁수요 등으로 사회적 생산 규모가 확대되며, 현저한 호황의 양상을 보인다고 전제한 후, 그 때문에 전쟁의 개시 그 자체까지도, 발생하려는 공황을 회피하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공황 내지 불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 같이 생각될 적이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 末永茂喜 『戦争経済と恐慌』『講座 恐慌論』第4卷(東洋経済新報社, 1959, p.259) 참조/ 또한 中村隆英의 『昭和史(II)』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맞은 세계적인 경기후퇴기였으며 1950년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계경제는 전쟁 태세로 접어들어 금세 활황을 되찾았다.」 이상, 中村隆英의 『昭和史(II)』(東洋経済新報社, 1993, p.438-439) 참조./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그 전쟁으로 유럽은 피폐해졌지만, 「유럽 외부의 국가들은 전쟁 기간 동안 번영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그중 특히 인도, 중국, 러시아에 공업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었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무역 수지는 유리해져 있었다.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으로서, 이미 놀랄 만큼 성취된 경제발달을 배가시켰다.」고 기록되고 있다.(이상, 폴 헤이즈 외, 강철구 외 역, 『유럽현대사의 제문제 1890-1945』(명경, 1995) 참조.)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수혜국이었던 미·일 두 나라가 이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두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금 ‘산 제물’을 드리는 전쟁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해, 오에가 전후 한때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군 ‘부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진정한 의미의 인류 부흥에 대한 각성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소설 속에서는, 복원병이 등장하는 「젠」의 체험담 자체가, 정신상태의 건전성이 다소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남자 「젠」의 「전력 투구형 창작」, 일지도 모른다는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生け贄)’이라는 이 소설의 과격한 키워드 속에는, 복제한 듯 비슷한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 역사의 반복을 응시하는 작가 오에의 위험하면서도 냉혹한 상상력이 작용하고 있다. 4월(봄)은 잔인하며,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는 엘리엇의 시는, 한때 전후 일본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던 「부흥」의 계절이 지닌 잔인성을 풍자하기 위해 이 소설의 심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6. 맺음말

오에는 본문 중에서 의도적으로 「이중(二重)」(p.60, p.62) 혹은 「내부적 심연(内部的深淵)」(p.65) 등의 단어를 사용해, 미자나빔 기법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와 밀접한 관련 하에 선택된 방법임을 누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본문 중의 「안 쪽에 내장한(内側に(略)しこんだ)」(p.55),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는(深くふかく入りこむ)」(p.60), 「심연으로 한없이 계속 침잠해 들어가는(深みへ果てしなく潜りこみつづける)」(p.65), 「지독한 수렁으로 처박힐 때까지 멈출 수 없는(ひどい泥沼に入りこむまで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p.83) 등의 구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미자나빔’ 기법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어 ‘미자나빔(Mise en abyme)’의 ‘Mise’가 바로 ‘심연’의 뜻을 지닌 단어이며, ‘미자나빔’의 의미가 ‘심연 속으로 들어가다, 무한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미자나빔(Mise en abyme) 기법이 도입된 이 소설 속에서 「심연(深淵)」, 「깊은 곳(深み)」, 「한 없이 침잠해 들어가다(果てしなく潜りこみつづける)」 등의 말들은, 불문학을 전공한 오에에 의해 본문 중에서 의식적으로 선택되었으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전반부에는 「젠」이 「신문에서 오려 낸 쪽지(新聞の切抜き)」(p.54)들이 직접 인용되어 있는데, 그 인용 방법이 보통의 소설 속에서는 보기 드문 낫선 형태—글상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글 안의 글, 이야기 안의 이야기라는 미자나빔 기법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큰 따옴표나 이중 괄호 등 다른 인용의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테두리를 두른 글

상자의 형식을 두 번씩이나 눈에 띄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소설의 기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밖으로 드러난 기법을 단순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첩된 이야기들 속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각각의 전쟁들의 상관성 내지는 복제성, 더 나아가 끝없이 되풀이 될지도 모를 불행한 역사에 대한 환기를 위해서, 기법 그 자체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이야기의 전달방법이 그대로 작가의 메시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황무지』가 성배 전설의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미자나빔 기법은 잠재적으로는 「산 제물(生け贄)」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신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후 경제를 비약시킨 한국전쟁 특수와 베트남전쟁 특수를 둘러싼 『산 제물 남자는~』의 가장 바깥쪽 ‘이야기’와, 그 내부의 심연으로 자꾸만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들’은, 역사의 반복과 연쇄를 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중층적인 미자나빔 기법을 필요로 했던 것은, 60년대 중반의 베트남 전쟁이 단순히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안에 20세기 인류가 지나온 반복적인 전쟁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는 작가 오에의 동시대에 대한 인식과 성찰 때문이다.

## 【参考文献】

- 김치수 외(2001) 『누보 로망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111-112  
김택현 편(1985) 『세계사 -제1차 세계대전』, 중원문화, pp.407-408  
이창배(1988) 『T.S. 엘리엇 연구』 민음사, pp.70-102  
T.S.엘리어트, 황동규 역주(1990) 『황무지』, 민음사, pp.10-12  
폴 헤이즈 외, 강철구 외 역(1995) 『유럽현대사의 제문제 1890-1945』 명경, pp.185-197  
피터 두우스, 김용덕 역(2004) 『일본근대사』 지식산업사, 2004, pp.242-247  
피터 심킨스 외, 강민수 역(2008)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플래닛미디어, p.657  
大江健三郎(1992) 『鯨の死滅する日』, 講談社文芸文庫, p.282  
大江健三郎(1977) 『大江健三郎全作品2(第Ⅱ期)』, 新潮社, pp.49-85  
小熊英二 (2004) 『<民主>と<愛国>』, 新曜社, pp.559-593  
末永茂喜(1959) 「戦争経済と恐慌」『講座 恐慌論』 第4卷, 東洋經濟新報社, p.259  
中村隆英(1993) 『昭和史(Ⅱ)』, 東洋經濟新聞社, 1993, pp.365-439  
中村政則(2006) 『戦後史』, 岩波書店, pp.116-122  
ピーター・ブルッカー, 有元健ほか訳(2003) 『文化理論用語集』, 新曜社, p.19  
ベトナム戦争の記録編集委員会 編(1989) 『ベトナム戦争の記録』, 大月書店, pp.5-171

## 要 旨

大江健三郎의 단편 『생계贖男は必要か』는 베트남 전쟁의 특需을 題材とする 物語の中にもう一つの 物語が 미자나비움 (mise-en-abyme : 入れ子構造) の手法で紹介されている。미자나비움은 一般的に 小説内小説と知られているが、そもそも 紋章学に起源を持つ 「미자나비움」という 用語의 本来의 意味——無限の中に入る こと、深淵の中に入る こと、という 意味——を考慮すれば、この 技法で書かれる 二つの 物語の間には 複製性・類似性のある ことが 前提条件となる。『생계贖男は必要か』における 二つの 物語は 各々異なる 二つの 戦争を 背景として いる。それは 베트남戦争と 第二次世界大戦——具体的には 太平洋戦争——であるが、この 二つの 戦争は 歴史的に 連鎖しており、列強의 帝国主義的인 欲望による 戦争である という 類似性がある。さらに 第二次大戦を 背景として いる 内側の 物語 (小説内小説) の中には 第一次大戦を 思わせる 이미지や 패러디가 使われていて、結局 この 短い 小説の中には <第一次大戦⇒第二次大戦⇒韓国戦争⇒베트남전쟁> といった 現代社会における 不幸な 歴史의 反復가 描かれて いる。この 小説의 手法として 미자나비움가 使われたのは、 小説의 主要 題材であり 背景とも なっている 幾つか의 戦争の中 に 潜在して いる 歴史의 反復性 あるいは 複製性 を あらわす ため である。

大江は、베트남戦争を 偶発的인 事件として ではなく 強大国의 政治・經濟的인 欲望가 再生産され 集約された 歴史의 反復として 描き出した かったと 考えられる。複製と 連鎖という かたちで 果てしない 深淵へ 入り込ませる 미자나비움의 手法は、 そうした 歴史의 反復을 象徴的に あらわして いる。つまり 미자나비움 という 技法 自体가、 베트남 戦争の中 に 重層的に 集約された 歴史의 反復을 暗示的인 ものが たっている といえる のである。

키워드 : 大江健三郎、미자나비움、入れ子構造、戦争、特需、帝国主義、  
冷戦、生け贖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